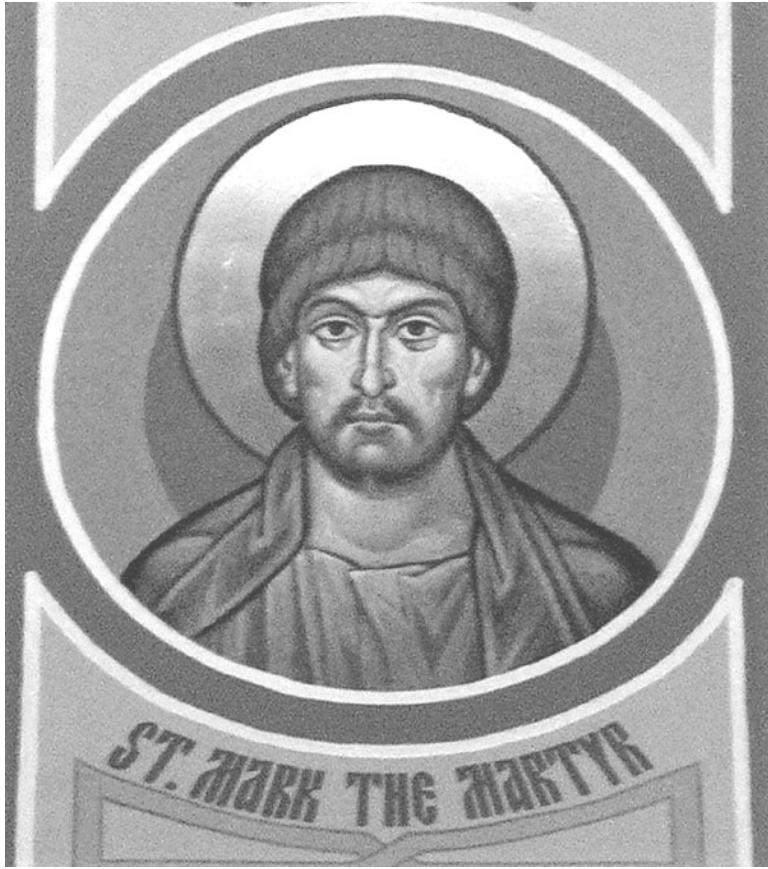




정교회 한국대교구 2021년 26째주 (6월 27일)

정교회 주보



성 모키아노스와 성 마르코 순교자

마태오 제 1주일 / 모든 성인들의 축일

성 삼손 수사

제 8조, 조과복음 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제 8조 부활찬양송 / 82, A 218

•주일 입당송 / 14, A 42

•모든 성인들의 주일 찬양송 / 269, B 341

•성당 찬양송

•모든 성인들의 주일 시기송 / 269, B 341

•사도경 : 히브리 11:33~12:2 / 269, 봉독서 114

•복음경 : 마태오 10:32~33, 37~38, 19:27~30 / 108, B 34

•모든 성인들의 주일 영성체송 / 270, B 342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교회의 기혼 성인들



성 모키아노스와 성 마르코 순교자

우리 교회에서 7월 3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모키아노스와 성 마르코는 통치자 막시무스로부터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인들은 우상에 제물을 바치고 숭배하라는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갖은 고문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렇게 성 모키아노스가

처형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을 때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그를 따라 가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 모키아노스는 참수형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하느님께서 자신을 가치 있게 해주는 순교에 대해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성 마르코는 참수 당했을 때 성인의 아내가 마르코 성인의 머리를 귀중한 보물처럼 기쁨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순진함을 이용하여 그들의 수고로 부를 쌓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기적을 행하셔서 “마귀 들린 사람들”, 즉 사탄의 지배를 받아 고통 받는 사람들을 치유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귀 들린 사람들을 사도들도 치유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까지도 복종시켰습니다.**”(루가10:17)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로가 나쁜 영에게 지배당해서 점을 치는 한 필립비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 여자에게서 썩어나가거라.**”(사도행전16:18)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는 에페소에서 “마귀를 쫓아낸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사도행전16:18), 사도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사도행전8:18~24)

20세기가 지난 후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 중에서도 점성술이나 운세 같은 것들을 믿으면서 중세의 어두운 시대로 다시 돌아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우 슬픈 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거짓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미래의 운세를 말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무당들은 사탄의 영향을 받아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성술을 믿는 사람들은 별의 움직임과 사람의 삶과 행동이 어떤 관계

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스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술사들을 믿는 사람들, 악마를 자신들의 도구로 만들어 악마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교회는 속임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악한 자들과 사기꾼들**”(II 디모테오3:13)은 다른 사람들의 순진함을 이용해서 그들의 수고로 부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총으로 날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무의미한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들에게 끼치게 된다고 하는 어떠한 나쁜 영향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와 있는 그 적대자보다 더 위대하십니다.**”(I 요한4:4)라고 요한 복음사도는 신자들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든지간에, 어떤 나쁜 영향이나 힘보다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의지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더 강력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투쟁해서 하느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와 주님의 권능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우리는 하늘 왕국의 자녀들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서도 한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에페소 2:6)

하느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늘나라’는 저 높이 바라다 보이는 하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계시는 곳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이 계신 모든 곳은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높이셔서 그리스도와 벗이 되게 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그 얼마나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며, 그분 사랑의 깊이는 그 얼마나 깊고도 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그분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 생각조차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감사를 불러일으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리는 하느님의 많은 선물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의 선물을 누리며 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되자, 비로소 우리는 그 선물들의 진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당연한 것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바라보았던 물질적이고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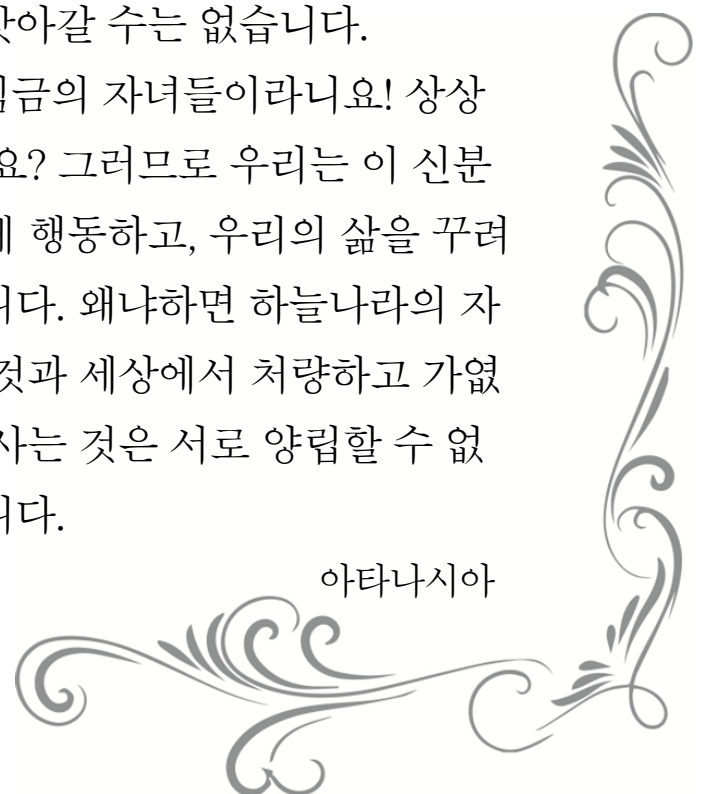
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곧, 햇빛과 물, 공기, 시원한 바람, 꽃들의 향기, 새들의 노랫소리 등등...

더 나아가 하느님은 우리를 이 땅 위의 삶으로부터 그분의 무한한 선하심이 빛나는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마음속의 고통이나 가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환경의 오염과 파괴도, 그리고 때때로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도 우리의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늘 임금의 자녀들이라니요! 상상할 수 있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분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우리의 삶을 꾸려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과 세상에서 처량하고 가엾은 존재로 사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타나시아



대교구

■ 인천 성 바울로 성당 축일을 축하합니다

6월 29일(화) 인천 성 바울로 성당 축일을 축하합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성 바울로 사도의 중보로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인분들이 영적 신앙생활에 정진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축일 축하합니다.

■ 오순절 축일

지난 주일 6월 20일에 우리는 오순절 축일을 지냈습니다. 오순절 축일은 성모회보 축일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축일 등, 하느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우리 구원 사업의 주님의 사건들이 끝나는 마지막 축일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주시길 간구합니다.

■ 거룩하고 위대한 정교회 공의회

5년 전인 2016년 6월 20일, 성령 축일 월요일에, “우리를 일치게 하셨나이다.”라는 오순절 축일 시가송의 내용을 중심 모토로 그리스 크레타에서 거룩하고 위대한 정교회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공의회는 결정사항들을 우리 한국정교회 대교구는 정교회출판사에서 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바르톨

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께서는 오순절 축일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일치는 크레타 공의회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공의회는 이미 역사적 사건으로 공의회를 통해서 우리는 자애로우신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께 영광 돌립니다.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에페소5:15~17)라고 사도경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공의회는 중요한 내용들과 결정사항들을 읽어보고 연구하여 영감 받기를 권합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 방문

지난 6월 19일 영혼 토요일을 맞이하여 성 바울로 성당 부인회 및 청장년회 회원 11명은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와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소티리오스 대주교, 아가티 수녀와 함께 추도식을 거행하고 대주교님으로부터 추도식 의미에 대해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장년회는 수도원주변 환경정리를 하고 부인회는 수녀님을 도와 정리정돈하고 수도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순절을 맞이하여 성령께서 항상 대주교님 그리고 수녀님과 함께하시며 건강과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간예식



6월 29일(화)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 사도

6월 30일(수) 12사도 연관축일

7월 1일(목) 성 코즈마스와 성 다미아노스 자선치료자

오전 9시 - 축일 조과 및 성찬예배